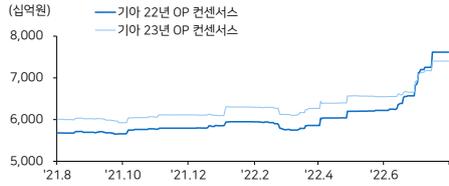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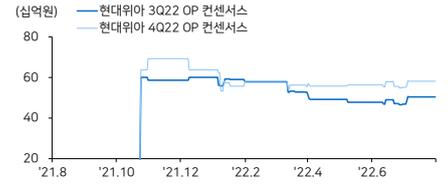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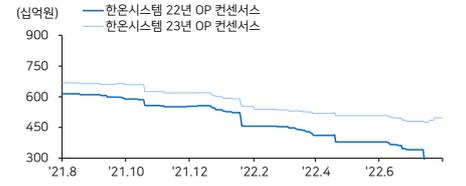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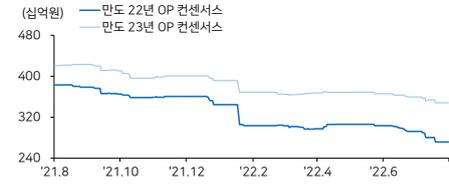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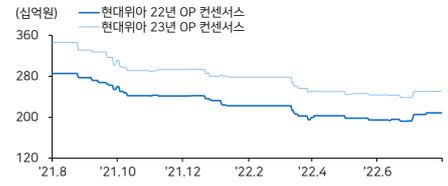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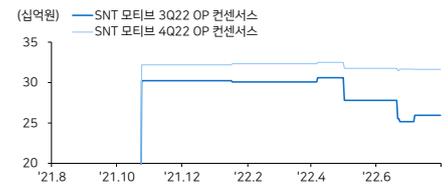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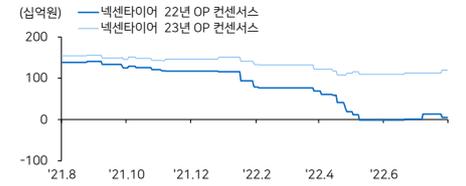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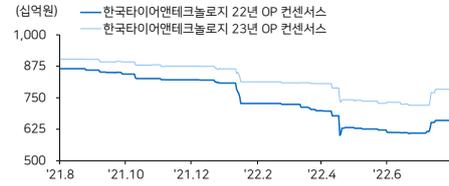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美보조금 못 받는 韓전기차...정부, 협의 나섰지만 법 개정 어려울 듯 (매일신문)

IRA 법안 제정으로 한국산 EV가 미국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정부가 공식 협의에 들어갔으나, IRA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행정부의 역점 사업인 만큼 국산 EV가 입을 피해를 되돌릴 최선의 방법은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제기.
<https://bit.ly/3e8v7t8>

"현대차·기아만 믿었는데"...타이어업계도 美 IRA 후폭풍 (데일리안)

현대자동차·기아의 현지 판매에 비상이 걸리면서, 이들의 전기차에 타이어를 공급하는 한국산 부품인 타이어업계 역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 만약을 대비해 미국 투자를 추가하거나 투자 일정을 앞당겨야 하는 처지가 됨.
<https://bit.ly/3Awg6bR>

Analysis: Musk's bold goal of selling 20 million EVs could cost Tesla billions (Reuters)

2030년 2,000만대의 BEV를 생산하려는 일로 머스크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8년간 새로운 기가팩토리 건설에 약 4,000억 달러, 배터리 공장 건설 및 제조에 2,0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할 수 있다는 분석.
<https://reut.rs/3e8vm7r>

Baidu's (BIDU) Apollo Go service strikes 1 million EV autonomous ride milestone in China (electrek)

바이두는 2분기 클라우드 매출이 31% 성장하며 전체 실적 컨센서스를 상회, 로보택시 서비스는 100만 회를 돌파하면서 차세대 자율주행 EV인 아폴로 RT6을 공개. Geely와의 합작법인 JIDU는 2028년 80만대의 자율주행 EV 제품인 목표.
<https://bit.ly/3AZAbhd>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 EV 600만대 판매 전망에 투자 확대 (글로벌이코노믹)

중국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2022년 전기차 판매량이 6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 1H22 눈에 띄는 수익성 진전과 함께 업스트림 광물 재료 탐사에 대한 투자를 확대. CATL, 고신하이테크, BYD 등 기업이 공격적 투자 지속 중.
<https://bit.ly/3e9dYpI>

워런 버핏, 최대 전기차 BYD 지분 줄였다...투자 14년만에 처음 (이데일리)

버크셔 헤더웨이가 2008년 BYD에 투자를 시작한 이래로 14년만에 처음으로 보유 주식을 매도. 당초 비아디 지분 20.49%를 갖고 있던 버크셔 헤더웨이는 이번 주식 매각 이후 19.92%를 보유하게 됨.
<https://bit.ly/3wK4h0J>

After climate bill passes, automakers race to make EV batteries in the US (electrek)

IRA 법안 통과 2주만에 EV 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글로벌 자동차 업체가 미국에서 부품을 조달하고 자동차를 조립하기 위해 경쟁하기 시작하는 등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확인.
<https://bit.ly/3AzCjPb>

Toyota's July global vehicle output drops again, puts annual target in doubt (Reuters)

토ヨタ 7월 생산량은 yoy -8.6% 감소한 706,547대를 기록, 목표치(80만대)를 4개월 연속 하회. 이로써 4~7월 생산량은 계획 대비 10.3% 하회. 그럼에도 8, 9월 생산량 회복을 기대하며 연간 생산계획은 유지.
<https://reut.rs/3wAwGv5>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